

인천공항 메르스 위기경보 '주의' 격상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확산 발생에 따라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 게이트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인천공항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의는 해외서 신종 감염병 유입 됐을 때 발효돼 중동발 여객 별도 검역...증상 나타나면 신고해야

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인천공항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의 경보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로 유입됐을 때 발효되며 이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1·2 여객터미널에 메르스 주의 안내 정보가 표출되고 특히 중동 발 여객기는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10번·32번에, 2터미널은 252번 게이트에 내리게 된다. 승객들은 이곳에서 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로 별도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민약 중동 국가를 방문했던 여객이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원에게 즉시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동발 여객기는 총 4편으로 카타르도하에서 출발한 QR88편과 EY876편(아부다비), KE952편(두바이), EK322편(두바이) 등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일 쿠웨이트를 방문한 61세 남성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렸고 영국 국적의 24세 여성도 9일 오후 7시께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가스 집중 단속 결과 123건 적발

서울시는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마일버스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7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일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 증가에 따라 오존농도에 영향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일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공회전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약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

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시와 자치구는 배출사업장 624개를 점검했고 부적합 업소 9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유형을 보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 등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과장은 "여름철 휘발성 배출시설 특별관리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에 도움이 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촘촘한 메르스 포위망 구축"

"총 30개 기관 참여 빈틈없이 대응 할 것"

서울시와 서울시 의사회는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서울시 의사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메르스도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촘촘한 메르스 포위망"으로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서울시는 감염병, 재난대비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서울시감염병협력위원회'를 운영해왔다"며 "서울시의사회, 감염학

회, 삼급종합병원, 시립병원, 수도권 방위사령부 등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감염병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일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밀접접촉자 10명에 대한 '능동감시' 뿐만 아니라 일반접촉자 172명도 진담공무원을 통해 비격리 능동감시'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시장은 "재난대비 의료지원 인력 지원체계 구축도 완료했다"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총 158명 의료인력 데이터화를 구축하고 교육

과 훈련을 통해 감염병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 걱정은 되시겠지만 지나친 불안감은 갖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 특히 중동지역 방문 후 귀국해 2주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신고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시내 의료인에게 "의료인 여러분은 신속한 메르스 극복을 위해 환자 내원 시 중동지역 방문을 확인하고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을시 독립된 공간에 환자를 배치하고 반드시 1339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병원 입구에도 '중동방문 후 증상시 1339로 신고'를 안내해서 메르스 예방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에게는 "시민 여러분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개인 위생에 다시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서울시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초기단계부터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하여 삼급종합병원과 1차의료기관 전문 의료인력 158명을 데이터화하고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민 한분도 메르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서 추석 직거래 장터 개최

12~14일 36개 업체 참여...시중보다 10~30% 할인 판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 지역진흥재단, 농협과 함께 12~14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맞이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을기업, 지역농가, 정보화마을 등 36개 업체가 참여한다. 120개 품목을 시중보다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 물품은 완도 김, 문경 건나물, 청주 사과 등 추석선물과 제수에 적합한 상품들이다.

올해는 전례 없는 여름 폭염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폭염 피해 농가 8개 업체가 참가한다. 폭염피해를 입은 한 농가 참여자

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통해 힘을 모아주는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정부, 지자체,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설맞이 직거래장터에는 19개 업체가 참여해 1억원대 판매 실적을 올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고 어려운 농가를 돕는 상생의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정부, 수도권 집값 안정위해 공공주택 총 36만가구 공급 검토

김종찬 시장 "과천 공공주택건설 반대...재정압박-교통난 심각"

정부가 집값 과열을 안정시키려고 수도권에 주택 총 36만 가구 공급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관련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 중 한 곳인 과천시가 반대 기자회견에 나서며 등파문이 일고 있다.

김종찬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내 과천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강력 반대 했다. 김시장은 "정부

계획대로 개발이 강행될 경우 시의 재정압박과 함께 심각한 교통난 등이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천시는 이미 재건축 6개 단지와 함께 지식정보타운 사업내에 1만406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중인 가운데 이중 60%에 이르는 9600여세대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라며 "개발 자체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

다.

또 그는 "정부청사의 지방 이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시 재정 악화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개발을 한다면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을 주택용지가 아닌 업무지역으로 시 주도로 개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우려 그는 "현재 정부가 확정

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과천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계획이 시행된다"며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었던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주변에 면적은 115만6000㎡의 신규 택지를 공급해 총 7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뉴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